

NEWS POINT

DB월드뉴스(국내)



DB뱅크

데이콤(천리안)

“교통정보”로 선진 교통문화의 선두주자가 되십시오!

천리안을 통해 안전운전 정보, 차량관리, 교통법규 등 각종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용어사전, 교통역사, 설문조사’ 등을 제공한다.

도시교통연구소에서 제공하게 될 ‘교통정보’는 현대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로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천리안 TOP 메뉴 14번 ‘여행/문화/가정/의학’의 13번 ‘교통정보’ 선택 또는 교통정보(GO TRANS)하면 된다. 또한 서비스 내용으로는 교통문화(안전운전, 차량관리, 법규, 미래교통 등), 교통관련 평론(대중교통, 제도/법규, 문화, 교통계획 및 정책), 교통상식/자료(용어, 교통학, 교통역사, 설문조사 등)이다(제공기관 : 도시교통연구소)

컴퓨터 종합 매거진 월간 "PC라인"을 천리안에서

컴퓨터 종합 매거진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한경PC라인의 월간 컴퓨터 잡지 'PC라인'을 천리안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되었다. 'PC라인'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뉴스, 이달의 특집, 통신플라자, 공개자료실, H/W, S/W, 컴퓨터 서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 정보를 이용하려면 천리안 TOP 메뉴 7번 '뉴스/날씨/스포츠'의 68번 'PC라인'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국내외 뉴스, 이달의 특집, 정보라이브러리, 통신 플라자, 칼럼/인터뷰, 공개자료실, 자료실 게시판, H/W, S/W, 컴퓨터 서적 등이다(제공업체 : 한경PC라인(주))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공보처 열림마당"으로

"공보처 열림마당"을 통해 정부발표문, 해외언론노조 및 주요외신 등 각종 정보를 접해보기 바란다. 공보처 열림마당에서는 "함께 생각합시다"를 개설하여 특정주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여론과 의견을 접수함은 물론, '공보처에 바란다' 게시판과 정부발표문, 해외언론노조/주요외신, 국정신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공보처 열림마당을 이용하려면 천리안 TOP 메뉴 18번 '공공' 부문 9번 '공보처 열림마당/KOIS' 선택하면 된다.(제공기관 : 공보처)

한국PC통신(주) - HTEL

토탈특허정보 - 특허정보의 모든 것

특허자료 검색이나 출원상담을 사무실에서 할 수는 없을까? 기술에 의한 무한경쟁이 부각되고 산업재산권이 강조되는 요즘 특허청이나 특허사무소를 찾아가는 횟수가 이전보다 잦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각 기업의 특허담당자 및 개인발명가는 매년 기존의 기술특허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해 특허청을 방문해야 하고 그에 따른 상담을 받기 위해 자주 특허사무소를 찾아가야 번거로움이 있다.

토탈특허정보(go tpi)는 이같은 불편한 점을 해결, 담당자가 직접 사무실에서 특허공보를 찾고 변리사로부터 특허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특허정보 전문서비스이다. 김영길합동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토탈특허정보는 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국, 출원일 등 특허와 관련한 기본자료와, 팩스를 통해 관련 도면 및 요약내용을 제공하는 팩스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토탈특허정보는 또한 특허, 상표, 실용신안 및 의장에 대한 상담과 각종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해 김영길특허사무소의 변리사 및 변호사에 의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같은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상담자와 변리사가 굳이 만나지 않고도 특허상담을 할 수 있다. 이밖에 발명에 얽힌 얘기들, 발명의 방법론, 특허일반상식 및 특허출원절차 등도 제공하므로 발명에 관심있는 학생 및 일반인들이 어렵게 알고 있는 발명을 분명하고 자신감있게 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탈특허정보를 이용하려면 (하이텔 초기화면 → 7.경영/산업 → 5.특허/상표 → 2. 토탈특허정보)의 순으로 선택하시거나 명령어 입력상태에서 "go tpi"하면 된다.

민원제공 서비스 - 서울시 중구청

이제 기존의 서울시 성북, 송파, 중랑구청, 종로구청, 동대문구청, 성동구청에 이어 중구청이 합류하였다. 추가되는 중구청서비스는 기존 민원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중구청의 업무안내뿐 아니라 동명칭 유래, 편의시설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호적등본을 비롯한 10종의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서류신청은 신청후 3시간 후에 방문하여 찾아갈수 있고, 신청후 수수료는 홈뱅킹서비스와 연결하여 처리가 가능하므로 민

원서류 발급신청때문에 구청을 직접방문하는 절차 없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우편으로 1~3일안에 받아볼수 있다. 중구청민원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하이텔 초기화면에서 17번 공공정보를 선택하신후 51.민원처리 - 1. 서울특별시 - 중구청을 선택하면 된다.

해외투자정보! 이제는 하이텔에서

해외투자정보(go ois)가 첫 선을 보인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하이텔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되는 "해외투자정보"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도움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각 국가별 투자환경, 국내 해외투자 인허가 및 지원제도, 해외투자 관련 국내법규, 합작투자 영문계약서 표준양식, 해외투자 통계, 해외투자 경험(성공 및 실패)사례, 합작투자 희망업체 리스트, 국내외 해외투자 허가 및 유관기관,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금융제도 안내, 해외투자 관련자료 목록 등 더이상 해외투자 관련 정보를 찾으려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하이텔을 통해 여러분은 해외투자와 관련된 모든정보를 보다 신속히, 보다 정확히 얻을 수 있다. "해외투자정보"를 이용하려면 초기화면에서 7.경영/산업 → 7.해외투자정보를 선택하거나, 어느 화면에서든지 'go ois'를 입력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에이텔(pos-serve)

<공보처 열림마당> 서비스 개시

새로이 마련되는 공공정보란의 <공보처 열림마당>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 홍보 자료를 비롯, 간행물 정보, 생활민원 안내까지 자세히 안내해주는 정보서비스이다. 정부와 나라 시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시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장'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공보처열림마당을 이용하려면 TOP 메뉴중 20. 공공정보 → 1. 공보처 열림마당 또는 GO GONGBO하면 된다. 서비스 메뉴로는 아래 표와 같다.

<공보처 열림마당> GONGBO 공보처(02-725-3705)

- | | |
|------------------|--------------|
| 1. 함께 생각합시다! | 11. 공보처 전화번호 |
| 2. 정부 발표문 | |
| 3. 해외 언론논조 | |
| 4. 국정신문 | |
| 5. 해외홍보 영문자료 | |
| 6. 간행물정보 | |
| 7. 중앙행정기관 생활민원안내 | |
| *. 홍보표어정보 | |
| *. 여론조사실 | |
| 10. 문화홍보영화목록 | |

월간지 <pc Line> 정보서비스 개시

한경PC라인에서 출판하는 <pc Line>은 재빠른 정보감각으로 신속하고 알짜배기 정보를 한발 앞서 컴퓨터 이용자분들께 제공하는 컴퓨터 잡지이다. 얼마전에는 CD-ROM을 별책부록으로 발행해 CD-ROM에 아직 낯설은 독자에게 앞서가는 정보감각을 일깨워 주기도 하여 선풍이 일으킨 정보업체이기도 하다. 이제는 <pc Line> 잡지를 직접 POS-Serve에서 한결 빨리 만나볼 수가 있다. CD-ROM을 통해 제공하던 무궁무진한 세어웨어 자료들을 pc Line의 자료실에서도 만나볼 수도 있으며,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GO PCLINE 하면 항상 새로운 정보가 여러분을 맞이할 것이다.

국정뉴스

청와대

PC경진대회

청와대는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 전산교육장에서 새정부출범이후 처음으로 "PC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청와대 직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사무자동화를 실천 하기위해 열린 이날 경진대회에는 비서관 이하 일반사무직중 희망자 대상의 1부와 각 수석비서관실 여직원 대상의 2부로 나뉘 모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1부에 참가한 직원들을 한글워드프로세서 "글2.1"과 386SX급 PC를 이용하여 "행정전산망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화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50분에 걸쳐 작성, 3.5인치 디스켓에 담아 제출했다. 제출 디스켓은 출력용지 설정과 여백 조정등 기초기능을 비롯 일반/특수문자 입력, 한자변환과 글자모양의 확대축소지정, 삽입, 정렬, 선긋기등 중급수준의 편집능력을 망라해 평가한다. 또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부는 총1천점을 만점으로 대회를 진행했다. 출제와 평가등 실무를 담당하는 김경서 청와대 전산실장은 이번 대회가 "386급PC가 청와대 다기능사무기로 도입된 지 7개월만에 치러지는 행사로 직원들의 활용수준을 알아보며 정부의 사무자동화시책을 적극 확신시킨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또 "반응이 좋을 경우 이대회를 연례행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체신부

'94년도 유망 중소정보통신기업 25개 선정

체신부는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94년도 중소기업 집중지원품목 및 대상기업으로 무선모뎀, 멀티미디어 통신처리기기 등 8개품목에 모두 25개 유망중소기업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정보통신분야의 유망중소기업은 지난 3월

모두 58개기업이 신청한 가운데 한국전자통신연구소와 한국통신이 현장실태조사를 벌여 선정했는데 이들 업체는 향후 5년간 자금, 판로 및 기술 지원을 받게 된다. 자금지원은 체신부가 중소기업은행에 용자를 추천, 5년간 10억원의 범위내에서 일반대출금리로 용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자선정시에도 가점혜택을 부여한다. 판로지원은 한국통신이 전자교환기등 통신시스템 제조업체에 구매를 알선하고 납품계열화를 유도하며 품질인증획득지도와 해외진출방안등을 강구하게 된다.

올해 선정된 유망중소기업은 다음과 같다. * 무선모뎀(4개사)=에이스전자기술연구소, 진보엔지니어링, 한화통신, 단암산업 * 음성 및 영상압축보드(4개사)=서두미디어, 상일전자, 비즈데이터시스템, 다림시스템 * 위성통신용 변·복조기(2개사)=한새전자기기, 일진전자통신 * 멀티미디어통신처리기기(3개사)=영실시스템, NTK, 창성컴퍼넌트 * 가입자회선증배장치(3개사)=장백정보통신, 연림전자통신, 노바시스템 * 팩스서버시스템(4개사)=디지콤, 매일정보통신, 대기정보통신, 일심전자통신 * 초소형·다기능무선호출기(3개사)=스탠더드텔레콤, 텔슨전자, 도아전자통신 * 고속디지털가입자전송장치(2개사)=국제전자정밀, 삼우통신공업

교통부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교통부는 물류 합리화의 일환으로 종합 일관된 수송정보 제공 체계를 갖추기 위해 해운·항공·철도·육로의 전산망을 통합한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신공항을 첨단 물류정보교환 기능을 갖춘 국제종합물류센터(허브)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교통부는 이처럼 무역망·통

관망·항공정보망·해운정보망·철도정보망·화물정보망을 EDI(전자문서교환)로 연결하는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최근 교통개발연구원 등을 통해 세부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부는 이에 따라 내년말까지 각 단위전산망의 구축을 완료하고 96년부터 이들 단위망을 상호 연결하는 종합물류정보망 체계로 통합,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개발중인 KL-Net(해운물류망)와 OIS(철도운영정보망) 사업을 96년부터 실용화하는 한편 국내 화물유통정보망과 항공화물정보망의 구축도 전담 법인의 신설을 통해 올해부터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초고속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 신공항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초고속 물류정보통신망 시범사업을 하는 한편 97년부터 최적 경로제공·차량상태 감지 등 과학적인 차량관리를 가능케 하는 화물차량 운송정보망의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 종합 물류망의 일관된 추진과 표준화를 위해 종합물류정보망 추진위원회를 올해안에 구성하는 한편 EDI용 표준 소프트웨어를 적극 개발, 보급하고 우수 추진주체도 선정, 지원하기로 했다.

보사부

보사부, 의료정보망 내년1월 시범 실시키로

보사부는 내년 1월부터 서울시내 10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정보망(MEDI-NET)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의 "의료정보망 구축사업 계획"에 따르면 연말까지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프로그램을 한국통신에서 개발하고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서울시내 1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또 2단계는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종합병원

등을 포함한 서울지역의 각급 의료기관 1백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96년에는 전국 4만7천여 요양기관으로 확대실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컴퓨터망 설치를 완료하고 빠르면 9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의료정보망 사업이 실시되면 의료기관이 환자를 치료하고 난뒤 보험수가중 의보조함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급여비의 청구가 종전처럼 서류나 컴퓨터 디스켓으로 이뤄지지 않고 의보연합회와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곧바로 청구돼 의료보험사무가 자동화된다. 또 현재 40일 가량 걸리는 진료비 심사, 지급기간이 2주 이상 단축되고 연간 60만건의 우편 수송물 감축효과도 거두게 된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기획단 구성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신사회간접자본으로 간주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작업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경제기획원에서 제1차 초고속 정보화 추진위원회실무위원회(위원장 한이헌 기획원차관)를 열고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기획단과 9개의 관련 부처별 전담반을 구성, 구체적 추진계획과 재원 조달계획 수립 등에 착수하기로 했다.

체신부에 설치된 기획단(반장 체신부 통신정책실장)은 기획총괄반, 국가망계획반, 공중망계획반, 기술개발반, 망운영반, 기술지원반 등 6개반, 48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24명은 각 부처에서 파견하는 인원으로 충원하고 학계, 산업계 등도 참여한다.

부처별 전담반은 *산업발전(상공자원부) *방송산업(공보처) *연구개발(과학기술처) *정보인력(교육부) *문화·영상산업(문화체육부) *지방행정(내무부) *국방(국방부) *의료·복지(보건사회부) *교통·물류(교통부) 등으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구축지원과 지방행정, 의료, 교육,

물류 등의 이용계획 수립을 담당하게 된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구축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며 우리나라는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말 초고속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설치했다.

정부기관별 DB육성책 본격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는 국내 데이터베이스(DB)산업을 육성 하기위해서 최근 각 정부기관에서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관계당국 및 관련업체에 따르면 올해들어 체신부를 비롯해 상공부·문체부 등 정부기관은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는 국내 DB산업을 일반 산업군에 비견할 만큼 발전시킨다는 방침아래 DB산업을 각 산업발전지원책에 지원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지원액을 대폭 증액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DB업체들은 저작권보호에서 자금조달에 이르기까지 일반산업군에 준하는 폭넓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체신부는 오는 97년도까지 지원키로 한 8백억원규모의 DB육성자금 가운데 금년도분 2백억원을 지난달 31일 한국통신과 공공DB개발 계약을 체결한 47개업체 및 기관에게 이달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체신부는 또 지난해 1, 2차로 나누어 4개의 DB업체에 17억을 지원한 바 있는 정보통신 진흥기금 지원은 올해에는 금액과 대상업체수를 2배 이상 늘리기로 하고 지난 3월 마감한 1차 지원업체 가운데 8개 업체를 선정, 4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어 오는 10월경에 신청을 받는 2차 지원업체에 대해서도 금액과 업체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상공부도 지난 4월1일자 상공부 고시조항의 첨단산업 범위에 "DB" 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DB업체들이 공업발전기금·중소기업진흥

기금·산업구조조정기금 등 상공부가 관장하는 각종 진흥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DB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병역특례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병역특례업체 선정을 위한 지침서에 포함된 각 산업분류 가운데 7240조항에 "DB"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삽입하고 이달초부터 말일까지 희망업체로부터 병역특례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말 DB산업에 대해 포괄적인 의미의 저작권법을 인정하는 법안을 상정함으로써 DB 산업 발전의 저작권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는데 앞으로 관련 법조항에 구체적으로 DB산업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정의 및 범위까지 삽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일본과 같이 별도의 조항을 마련해 DB산업의 저작권 인정을 구체화 함으로써 DB개발을 촉진하고 특허시비 등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각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이 자체 확보하고 있는 각종 공공 DB를 일반사업자에게 공개하거나 위탁형식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어 국내 DB산업발전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각 정부기관별 DB산업육성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정보화사회에서 사회간접 자본의 기간을 이루게 될 DB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DB산업이 낙후되어 있음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뉴스

한국통신

한국통신 내년 출연연구과제

한국통신은 내년에 4백76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광대역 회선분배시스템(BDCS)등 총 22건의 출연연구과제를 개발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이 마련한 "95년도 출연연구기술개발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5백98명의 연구인력을 투입해 총 22건의 출연연구과제를 개발하기로 확정 하고 한국전자통신 연구소(ETRI)로 하여금 이의 연구개발에 나서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지난해에 이어 계속 되는 연구과제로는 광대역 회선분배시스템을 비롯해 고선명TV 전송시스템, 고선명TV코덱기술, 통신처리 장치의 고급기능 개발, 자동통역전화 요소기술 개발, 광통신 수동 부품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종합관리, 고선명TV 위성전송시스템 개발, ISDN(중형정보 통신망)기술개발, TDX-10SSP개발, ISDN무선접속서비스 개발 등 11건에 2백19억원이다.

또한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로는 ISDN신형교환기 개발을 비롯해 차세대 지능망 기술연구, 광대역 위성통신시스템 기술연구, 6백22Mbps급 광송수신모듈, 광증폭용 LD개발, 디지털AV서비스시스템 개발, 유·무선통합교환기능 개발전략 연구, 통신시스템 기구장치기술 표준화 연구, 정보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성 서버 개발,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및 기술정책 연구, 국제위성 휴대통신망 구축기술 개발 등 11건에 2백66억원이 투입된다.

통신체증 날로 심각..고속통신회선 증설 “불”

컴퓨터 정보통신 이용자들이라면 누구나 ‘느림보’전송과 ‘이용중’이라는 메시지 때문에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영상음향까지 주고 받는 멀티미디어시대에 이르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리라 예상된다. 한국PC통신의 ‘하이텔’은 이러한 불만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1만4천4백(초당 1만4천4백비트전송)고속통신서비스를 6백회선으로 늘릴 계획이며 데이콤의 ‘천리안’도 9천6백서비스를 일부 시작했다.

통신서비스 선진국을 자부하는 미국의 정보서비스업체 아메리카온라인, 컴퓨서브, 프로디지,

GE인포메이션서비스, 텔파이 인터넷서비스등과 통신망업체 MCI사의 ‘팀네트’와 스프린트사의 ‘스프린트네트’도 이러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컴퓨터 관련 조사회사 주피터 커뮤니케이션사에 따르면 미국내 컴퓨터이용자 가운데 모뎀을 이용해 컴퓨터 통신을 하는 숫자가 연말까지 5백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오는 96년까지는 1천5백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이용자중 상당수가 9천6백나 1만4천4백급의 모뎀을 갖고 온라인 정보에 접속하고 있지만 고속통신회선 수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어서 불만 요인이다.

이에 따라 각 업체들은 빠른 시일안에 고속통신회선의 대폭 증설을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2만8천8백 서비스 실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보서비스 업체별로는 컴퓨서브가 현재 미국내 70여개시에 1만4천4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만8천8백서비스도 실험중이다. 프로디지는 금명간 일부 지역에 1만4천4백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2만8천8백회선도 제공할 방침이다. 프로디지·아메리카온라인·텔파이 등이 이용하고 있는 팀네트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로스앤젤레스등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1만4천4백나 2만8천8백급의 고속통신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팀네트는 미국내 6백개시에 3백7개의 9천6백회선 또는 연결거점을 갖추고 있다. 아메리카온라인·GE인포메이션·텔파이 등에 통신망을 대여해 주고 있는 스프린트네트는 일부지역에서 1만4천4백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95년말까지는 이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내 SW 교육센터 개설

한국통신(사장 조백제)은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사내 소프트웨어교육센터를 경기도 성남시에 개설, 7월1일 문을 열었다. 1년 과정

으로 40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이 교육센터에서 사내에서 선발된 직원을 대상으로 정규 대학원에 주는 교육을 시키게 된다. 한국통신은 내년부터 타사 직원들에 대한 위탁교육도 시킬 계획이다.

한국전산원

국가기간망 정보센터 구축, 이달중 본격 가동

한국전산원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을 인터넷으로 연결, 상호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간망 정보센터를 구축, 이달중 본격가동에 들어간다. 한국전산원은 올초 이 망정보센터를 구축, 그동안 법무부와 경제기획원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왔으며 이달중 청와대·외무부·국방체계 연구소·교육개발원 등으로 확대,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망정보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자우편·전자계시판 등 메시지 서비스와 정부 기관의 공개가능한 공공DB 및 국내 PC통신·학술정보망과 국제인터넷 등의 각종 공공DB를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망정보 센터에 가입한 공공기관은 전자우편을 통해 상호 문서 및 정보교환은 물론 정부기관의 공개DB의 액세스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국가 기간망의 백본이 되는 인터넷의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우선 공개가능한 문서만 교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국전산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전산원은 오는 9월부터 소프트웨어 개발품목DB·표준화정보 DB 등 자체 보유정보도 DB로 개발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국전산원은 올해 10개 공공기관과 연계하는 등 내년까지 주요 기관 연계를 확대하고, 96년 이후에는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국가기관 VAN사업

자로 위치를 굳혀나갈 방침이다.

시스템공학연구소

시스템공학연-한국하이테크, 문서자동입력용 SW 개발

각종 문서를 원본 그대로 읽어 퍼스널 컴퓨터(PC)에 입력할 수 있는 문서자동입력용 소프트웨어(S/W)가 개발됐다. 시스템공학연구소(소장 김문현) 인공지능연구부 오원근박사팀은 한국하이테크(주)와 공동으로 지난 3년간 2억4천만원의 연구비를 들여 386급 PC에 각종 문서를 원본대로 저장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광학문자인식시스템 실용화”과제로 개발된 이 S/W는 스캐너로 읽혀진 각종 문서를 PC에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들어 한글문서를 스캐너가 읽으면 이 소프트웨어가 문서에 있는 글자를 코드로 전환, 입력시킨후 출력시에는 다시 한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문서입력용으로 많이 쓰였던 광파일시스템은 이미지입력방식이기 때문에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과 같은 형태였다.

그러나 연구팀이 개발한 시스템은 글자 하나하나를 코드로 전환하는 코드입력방식이라 문서편집이 가능하고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40-50배이상 많다는 특징이 있다. 연구팀은 이 시스템으로 한글, 한자, 영어는 물론 숫자와 부호도 입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식할 수 있는 글자꼴이 아직은 “글”워드프로세서의 명조 및 고딕체와 “한글워드” 워드프로세서의 명조, 고딕체로 제한돼 있는 단점이 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외국 정보통신형식승인제도’ 자료집 발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최근 주요 국가의 전기통신단말정책과 형식승인 관련제도를 수록한 '외국의 정보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도 및 현황'이란 자료집을 발간했다. 형식승인제도는 통신기기의 제조·판매와 유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각국에서 자국의 시장보호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이 해외시장진출의 관건이 되고 있다. 총2권 3천여 쪽의 이 자료집은 *북미·일본·유럽등의 전기통신단말정책 연혁, 인증제도, 전체적인 경향등을 다룬 '개요'편 *우리나라와 형식승인 상호인증을 추진중인 미국·캐나다·호주·일본의 형식승인제도현황, 단말장치의 기술기준, 시험방법등을 소개한 '각국의 형식승인제도'편으로 구성돼 있다.

각국의 형식승인 관련제도는 원문과 번역문을 동시에 수록해 정확한 개념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단말기수출시장인 미국의 제도소개는 1천3백여쪽을 차지하고 있다.

협회는 이 자료집을 우선 2백질 발행, 1질당 10만원으로 전국 전문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정보처리전문가협회

정보처리산업 96년까지 연40%성장 기대

국내 정보처리 산업은 오는 96년까지 연평균 40%가량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보처리 전문가협회(회장 김영태)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2백1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정보처리산업 시장동향"에 따르면 국내 정보처리산업 시장규모는 지난 93년 1조2천8백억원에서 올해말 1조7천5백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 정도 성장하고 오는 96년에는 3조5천2백억원으로 연평균 40%선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96년말에는 정보처리 산업규모가 93년에 비해 2.75배가량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은 93년 2천6백13억원에서 94년 3천3백63억원으로 29% 성장하고 96년에는 96천2백29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패키지소프트웨어시장이 신장할 것으로 전망된 것은 정부와 관련단체의 지속적인 불법 단속으로 정품 사용이 늘고 있고 정보처리부문에서는 정부 공공부문이 50%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정보서비스 부문(패키지 제외)은 93년 1조1백19억원에서 94년 1조4천1백85억원, 96년 2조9천10억등으로 96년에는 2조9천억원으로 신장할 것으로 전망 됐다. 정보서비스분야를 업종별로 보면 93년은 제조업이 5천4백92억으로 42% 정도를 차지 했고 금융보험, 정부 공공, 유통 운송, 서비스개인 등의 순이었으나 94년에는 제조업의 비율이 40%이하로 줄어드는 대신 정부 공공부문이 20% 정도로 커질 것이며 서비스 개인부문도 12% 정도로 비중이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근 각광받고 있는 멀티미디어부문의 매출 비율은 현재 전체의 5% 를 밀돌고 있지만 매년 80%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앞으로 유망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일반

저작물인정관련 시행령없어 혼선

지난해말 음반대여권과 DB(데이터베이스)를 저작물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지난 6월 1일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운용규칙을 규정한 시행령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저작권법에는 음반 대여권과 편집 저작물에 해당되는 DB를 저작물로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구체 시행세칙이 현재까지 공포되지 않고 있다. 업계는 이 저작권법이 지난해말 개정돼 시행령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지금까지 뚜렷한 시안마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부의 안일한 “뒷집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음반대여권의 경우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 배포권자·실연자·음반제작사들에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시행령이나와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데도 문체부가 계속 시행령 발표를 미뤄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혼선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베른조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 저작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시행령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음반대여권의 경우 배타적 대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시행령에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해 대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지정단체 및 시행령 발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은 우선 음반 재킷 등에 대여용과 판매용을 구분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형태로 대여권 보호에 나서는데 응급처방에 나서고 있다.

국내일반뉴스

포스데이터

포스데이터 정보공학방법론 개발

포스데이터(대표 성기중)는 정보시스템의 계획 수립, 분석, 설계, 구축, 운영에 이르는 전 단계를 체계화한 정보공학방법론(IEM : Information Engineering Methodology) “POS-IEM”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정보공학방법론은 93년6월부터 포항제철의 “경영관리,수주생산시스템” 구축 방법론을 체계화한 것으로 프로젝트 개발의 표준이 되며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유,관리를 체계화할 목적으로 개발됐다.

8권의 지침서<사진>와 함께 제공되는 POS-IEM은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수행시 데이터 중심의 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케한다.

한국후지쯔

농심데이터시스템과 IBS관련 협력계약 체결

한국후지쯔와 농심데이터시스템은 국내에서의 본격적인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한다. 이 기술 협약은 그동안 양사가 축적해온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IBS사업추진시 협력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내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양사는 일본의 후지쯔가 보유하고 있는 IBS상품을 기초로 양사가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실정에 맞는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게 된다. 농심데이터시스템은 농심그룹이 지난 93년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해 계열사 전산실을 통합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98년 준공예정인 농심그룹 사옥에 구축될 IBS의 설계 및 공급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관련부문을 강화하고 국내의 IBS 시장 진출을 선언한바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기본적인 IBS관련제품과 기술을 제공하게 되는 후지쯔는 세계 제2위의 정보통신회사로서 IBS부문에 있어서도 다양한 제품과 전문화된 서비스로 일본에서 풍부한 공급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양사는 앞으로 이번 IBS사업 이외에도 양사의 새로운 사업영역의 확대 및 솔루션 확보에

도 상호협력하는 등 포괄적인 사업협력을 약속했다.

국내에도 '홈뱅킹 시대' 2~3년내 도래

국내에도 개인용 컴퓨터(PC)나 팩시,전화를 이용해 집에서도 은행 일을 볼수 있는 "안방금융" 시대가 성큼 다가서고 있다. 집에서 PC로 은행과 거래하는 주부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다 시중은행들이 전화를 통한 홈뱅킹 확대를 위해 독자적인 자체 ARS(자동응답서비스)개발에 들어가 일제히 연내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아래 사전 작업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홈뱅킹 이용자수는 2-3년내에 1백만명선에 달할 것으로 은행측은 추산하고 있어 이때가 되면 창구에서 고객과 직대면하는 현행 금융기관 풍속도는 크게 바뀔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홈뱅킹 이용자는 지난해말 현재 2만3천명을 넘어서 1년만에 무려 6배나 급증한데 이어 올 들어서도 이같은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대부분 집에서 PC를 통해 은행 일을 보면서 시간을 절약하는 첨단 주부고객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도 현재 금융결제원의 공동통신망을 통해 전화 홈뱅킹 서비스를 해오던 은행들이 자체 서비스망 구축에 들어가 연내에 개통시킬 방침이어서 전화를 이용한 홈뱅킹도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안방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 단순한 잔액조회나 금융정보조회에서 벗어나 자금 이체는 물론 신용카드결제 및 현금서비스, 수납대급이체, 타행간 계좌이체 등 어지간한 은행일은 죄다 볼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제공 준비에 들어가는 등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DB월드뉴스(국외)

오키, ISDN대응 단말어댑터 발매

일본의 오키전기공업은 DSU(디지털 회선 종단장치)를 내장한 ISDN대응 터미널 어댑터인 PSLINK TA-DSU(가격 13만8천엔)를 7월말부터 출하한다. 연간 5천대의 판매를 예정하고 있다. 이 제품은 DSU를 내장하고 있기때문에 INS네트 64의 U점인터페이스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자동 속도상태기능이 있어 상대방에 맞춰 속도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없기때문에 회선속도를 자동으로 선택해 통신을 시작한다.

일본오라클, 퍼스컴LAN용 RDBMS 발매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대기업인 일본오라클사는 퍼스컴LAN용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RDBMS)을 발매했다. 주력이 되고있는 UNIX용 RDBMS에서 퍼스컴용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다. 오라클 워크그룹 서버라고 부르는 신제품은 서버용 기본 소프트웨어로써 윈도우즈NT, 네트웨어, OS/2에 대응하는데 GUI를 도입하여 사용하기 쉽도록한 외에 클라이언트측에 윈도우즈퍼스컴을 사용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툴을 표준으로 장비하고 있다. 2대용이 11만엔, 10대용이 35만엔, 25대용이 75만엔이다.

유럽5국, 정보수퍼하이웨이 포럼 결성

유럽 정보수퍼하이웨이의 실현추진을 목표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5개국 통신사업자가 ACE2000이라고 불리는 포럼을 결성했다. 독일 DBPT가 밝힌바에 의하면 참가한 5사는 포럼에서 네트워크 운영과 매니지먼트, 서비스 등의 노하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첫 회합은 9월로 예정되어 있다. ACE2000그룹은 정보수퍼하이웨이의 기술적 가능성을 테스트함과 동시에 널리 알리기위해 전유럽 레벨로 파일롯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인데 5사는 금년 광대역 통신의 연구개발을 위해 5억ECU를 지출하며 이와는 별도로 파일롯 네트워크를 위해 1억ECU를 각출할 방침이다.

일본 유력 신문사들, 멀티미디어 신문 개발 나서

일본의 유력신문사들이 잇달아 멀티미디어신문 개발에 나서고 있다. 멀티미디어신문은 신문사가 제작한 지면을 광파이버등의 통신망으로 직접 가정에 배신하는 것으로 가정에서는 퍼스널 컴퓨터로 받아보게 된다.

일본경제신문이 지난해 가을 사장실 밑에 국장급의 기획부문으로 “멀티미디어연구회”를 설치한 것을 시발로 아사히가 지난2월 국장급의 “멀티미디어검토부회”, 요미우리가 같은달 “멀티미디어연구회”, 3월에는 마이니치가 “멀티미디어위원회”를 각각 설치, 멀티미디어신문시장을 겨냥한 선점경쟁에 나서고있다. 신문사들이 이렇게 멀티미디어사업에 나서고있는것은 이미 컴퓨터제작이 일반화돼 기술상으로 문제가 없는데다 신문사의 최대고민인 유통비용을 낮출 수있다는 장점이 있기때문이다.

현재 일본신문사들의 유통비용은 판매가격의 52%에 달하고있다. 각사가 제열판매망을 갖고 발행부수를 유지하기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있는 실정이다. 일본신문협회에 따르면 유력 9개신문사의 90년도 매상고손익분기 비율은 93.

23%로 전산업평균인 86.68%를 크게 웃돌았다. 그후 92,93년 2년연속해 부수감소와 광고불황이 겹쳐 현재 이 비율은 1백%에 육박하고있다. 이 악제로현상이 나타나고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멀티미디어신문발행으로 오히려 광고수입이 줄어들 우려는 있지만 우선 최대 경영압박요인이 되고있는 유통비용을 줄일수있다는 점에서 신문사들은 개발에 열을 올리고있는 것이다. 일신문사들의 멀티미디어대응 일본경제신문사 93년가를 “멀티미디어연구회”설치 96년을 계기로 전자신문 전시용시스템개발 아사히신문 94년2월 국장급8명으로 “멀티미디어검토부회”설치 하부조직으로 25명의 “연구회”가동 요미우리신문 2월에 “멀티미디어연구회”설치, 국장급 마이니치신문 3월에 “멀티미디어위원회”설치 산케이신문 올봄 “전자신문연구회”발족, 후지산케이그룹에서연구회설치계획이다.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법 초안 논란예상

조만간 도래할 전자통신시대를 겨냥, 론 브라운 미상무부장관이 내놓은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 보호법 예비초안이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가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 같다. 특히 이 법안은 미국의 “지적재산”을 쓰고 있는 모든 국가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동안 미국과 지적재산권 시비를 벌여왔고 현재 유사한 정보체제구축을 추진중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법안내용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된다.

이 안은 종래의 저작권 보호가 책의 복사나 테이프 등의 복제를 규제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에 비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상, 음악, 방송, 출판 등 이른 바 “정보 수퍼 하이웨이” 전자통신 방식을 통해 교류되는 모든 종류의 정보들에 대해서도 기존과 같은 개념의 지적재산권을 부여해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규제내용을 담고있다. 예컨대, 어떤 개인이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

하고 개인용 컴퓨터단말기를 통해 어떤 정보를 입력 받았을 때 이 정보를 임의로 다른사람에게 복제등의 방법을 통해 넘겨주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다.

이는 기존의 서적 무단복사가 법에 저촉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같은 무단복제를 금지시킬 "기술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무단 복제라는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통신의 경우 상당수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교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나 가족등과 주고 받는 정보 교환도 규제의 대상이 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상무부측은 "인원수나 관계등에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범위를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하나 교육자나 도서관, 언론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복제, 인쇄, 복사하는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가칭 "공정 사용자" 조항을 두는 식으로 예외 규정을 만들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받은 상무부가 3개의 실무팀을 구성해 작업해온 이 초안은 워싱턴, 시카고등 3개 도시에서의 공청회를 거쳐 금년 말 최종안이 만들어진 뒤 내년도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 회부시킬 계획이어서 빠르면 내년중에 미국은 새롭고 막강한 또 하나의 "통상 무기"를 가지게 될 전망이다.

일본 우주통신, 디지털 압축 화상데이터 전송서비스 개시

일본 미쓰비시그룹의 통신위성회사인 우주통신(SCC)은 올 가을 디지털 압축기술을 이용한 영상전송서비스를 개시기로 했다. 이 회사는 영상 데이터를 4분의 1 가량으로 압축함으로써, 사용하는 회선 용량을 작게하고 이용요금을 낮춘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업내 TV 등으로 용도를 한정하고, 요금은 50%가량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통신서비스는 비싼 요금이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는 데 걸림돌이었으나, 이 회사는 디지털 압축기술로 이를 해결해 잠재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SCC는 미쓰비시전기, 도시바, NEC, 이케가미통신기, 소니 등의 업체와 공동으로, 디지털 압축기술을 이용한 영상전송 실험.연구를 추진해 왔다.

보통 영상을 전송할 때는 36메가헤르츠대역을 사용하나, SCC는 최근 영상 데이터를 압축해 6메가헤르츠대역에서 디지털 전송실험을 실시했다.

이 결과 전송하는 것이 정치화상이면 10분 이용할 수 있는 화질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실용화할 때는 데이터를 4분의 1가량으로 압축해 전송할 예정인데, 회선 용량은 이전의 4분의 1밖에 들지 않지만 디지털압축용 새로운 설비가 필요하므로, 서비스요금은 그대로 4분의 1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으나, 이전의 50% 가량까지는 낮아질 전망이다.

일본 도요타자동차, 세계적인 부품 데이터베이스 구축키로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거래 부품업체의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해, 94년말에 가동키로 했다. 이 회사는 현재 해외생산거점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1천개사 이상의 부품업체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로 이들 부품업체들의 제품과 비용, 품질 등을 정확히 파악해 정보를 일원화하고 컴퓨터로 관리할 예정이다. 도요타자동차는 올들어 새로운 구매방침으로 '세계의 가장 적합한 조달'을 설정했는데, 새로 구축키로 한 데이터베이스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인 셈이다. 도요타자동차 본체와 해외생산거점이 거래하는 부품업체는 일본내가 약 2백 50개사인 데 비해, 해외 부품업체는 최근 빠르게

늘어나 미국이 약 4백개사, 유럽과 호주는 약 2백개사, 동남아시아 약 3백개사 등이다. 엔고가 진행됨에 따라 부품을 수입하는 이점은 커졌으며, 미국 등에서는 수입부품의 구입을 확대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또한 해외생산거점이 늘어나 부품조달은 복잡해졌다. 이에 따라 이 회사로서는 전세계적인 규모로 가장 적합한 부품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이를 정보면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당분간 기능 부품과 고액 부품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연말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거점에서 단말을 설치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이 회사는 정보량을 충실히 하고, 아울러 장래에는 물류비용도 근거로 해 가장 적합한 조달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지난해 정보처리산업 매출 첫 감소

일본의 지난해 정보처리산업 매출규모는 전년 비 1.87% 줄어든 1조8천8백26억4천4백만엔으로 사상 첫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보처리진흥사업협회가 발표한 '정보처리산업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이 업종 종사자중 10.4%가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매출실적을 보면 소프트웨어부문이 1조4천8백53억1천 6백만엔으로 전년비 1.2% 줄었으며, 정보처리부문은 1천9백7 3억2천8백만엔으로 0.8% 줄어들었다.

한편 이 조사는 전체 3천7백사에 설문을 발송, 소프트웨어업종 5백88사, 정보처리서비스업 1백4사 등 총 6백92사가 응답한 것을 종합분석한 것이다.

독일, 정보기술시장 급성장

독일의 정보기술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신제품

개발이 붐을 이루고 있다. 작년말현재 독일의 정보기술시장 규모는 수입을 포함, 80년에 비해 2배로 급증하는 호조를 기록했다.

작년 약 6백50억마르크에 달한 거래액중 자료관리기술이 50%를 차지했고 통신기술 및 사무실설비기술은 각각 40%,10%를 차지했다.

여기에 연간 거래규모가 3백50억마르크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부문을 포함시킬 경우 독일 정보기술시장 규모는 1천억 마르크를 기록, 거래 규모면에서 전통 산업인 철강산업, 광업, 섬유산업을 앞지르고 있다. 정보기술과 관련된 기업들로 구성된 독일정보기술협회에는 현재 아그파 게베르트 그룹, 애플컴퓨터, IBM컴퓨터, NCR컴퓨터, 지멘스, 유니시스 등 약 1백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그러나 부문별로 볼때 퍼스널컴퓨터분야는 지난 2년간 성장곡선이 둔화세를 나타냈고 통신기술분야도 작년 경미한 성장 둔화세를 보였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부문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정보기술분야에서도 외국기업과 상품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세계 유수의 컴퓨터메이커들이 독일에 진출, 자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반면 독일기업들은 해외 현지생산 강화와 기업활동의 국제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볼때 정보기술분야가 성장 유망 산업이라는 점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나 지금 추세대로라면 독일의 사무실설비 및 자료관리기술분야의 수입증가 현상은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정보기술분야에서 기술발전과 극심한 기업간 경쟁으로 인해 구조개편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독일정보기술협회의 프란쯔 쉐러 회장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부문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정보기술시장의 가치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서비스, 시스템설치, 컨설팅 등으로 이 전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DB